

동강대 학군단, 육군부사관학교서 동계 입영훈련



동강대학교(총장 이민숙) 제305학생군사교 육단(이하 동강대 학군단)이 지난달 전북 여산 면 육군부사관학교에서 19일 동안 동계 입영훈련을 마쳤다. (사진) 동강대 학군단은 동계 입영훈련에서 한계를 극복하며 직업 군인의 기본소양과 전투 수행능력을 키웠다. 이번 훈련에는 동강대 RNTC9기 2학년 후보생과 10기 1학년 후보생 등 19명이 참여해 임관 종합평가, 각개전투, 개인화기, 유격 훈련 등을 교육 받았다. 특히 9기 후보생 11명은 부사관으로 임관 전 종합평가에서 전국 RNTC 설치대학 중 유일하게 전원이 합격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서구가족센터, 아이돌보미 집담회 개최



광주서구가족센터(센터장 윤혜경)는 17일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다목적실에서 서구 아이돌보미 100여 명을 대상으로 집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집담회는 아이돌보미 간 활동 정보를 공유하고 아동학대 사건 예방과 돌봄서비스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와 아동 권리 보호, 아동학대의 정의와 유형, 학대 예방법과 대처 방법 등을 익히며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 광주 서구에서 활동하는 아이돌보미는 총 205명으로, 328가정 505명의 아동에게 일대일 맞춤형 아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유연재 기자 yiyou@

전남대 여수학연구원 순천대 인문학술원과 업무협약



전남대학교 여수학연구원(김대현 원장)과 순천대학교 인문학술원(강성호 원장)이 최근 학술연구 교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학 연구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학 연구기관 간 학술교류 및 연구협력 체계를 구축해 상호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두 기관은 ▲지역학 분야 공동 연구 및 학술 조사 ▲학술행사의 공동 개최 및 연구 자원의 교류 ▲창의적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전문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북구 다함께돌봄센터, 삼성꿈장학재단 지원사업 선정



광주시 북구 다함께돌봄센터(매곡)가 '2025 삼성꿈장학재단 배움터 교육지원사업'에 3년 연속 선정됐다. (사진) 북구다함께돌봄센터(매곡)는 매곡지역아동센터와 함께 교육지원이 부족한 아동·청소년들에게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삼(三)유'를 지향하는 융합 '소리가 들리는 동시 시즌 3-우리들의 동시 시(詩)원하게 놀자' 사업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정형우 대표는 "광주 북구 관내 아동·청소년이 꿈을 설계하고 역량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광주시약사회, 김동균 제14대 신임회장 취임

김동균(사진) 신임회장이 제14대 광주시약사회장에 취임했다. 광주시약사회는 지난 15일 홀리데이인광주호텔에서 제39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박춘배 전 회장과 김동균 신임회장의 이취임식을 진행했다. 김동균 회장은 정관과 규정을 준수하고 국민건강증진과 약사직능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광주시약사회장으로 회장직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한 후 회기를 인수받았다. 김 회장은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품질약 문제, 퇴장 방지 의약품과 필수약품 생산 중단 및 공급부족 심각성을 언급하며 하



루 빨리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의약품의 재고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급 부족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 회장은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약사 직능 미래를 위한 5가지 비전을 제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송하철 국립목포대 총장 국가중심 국공립대 총장협의회장 취임



국립목포대학교 송하철(사진)총장이 국가중심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 제26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국가중심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는 국립목포대, 국립강릉원주대, 국립공주대 등 19개 국공립대학교 총장으로 구성된 전국단위 협의체로 국가 교육발전 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향후 1년간 활동을 하게 된 송 총장은 "국가중심 국공립대학교 총장님들과 더불어 급변하는 대학 환경에 선도적으로 대응해 국가 고등교육의 발전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일보 73년 - 유튜브 2천만뷰 돌파

TV프로그램 18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4 columns: Channel (KBS1, KBS2, MBC, KBC/SBS), Program Name, and Time Slot. Lists various news, entertainment, and educational programs.

EBS1

Table with 2 columns: Program Name and Time Slot. Lists EBS1 programs including news, documentaries, and educational content.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2월 18일 (음 1월 21일 戊午)
36년생 전방위적인 노력이 절실하다. 48년생 잔물결이 항해에 주는 역할은 미미하다. 60년생 부합하기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72년생 모순된다면 굳이 엄밀할 필요가 없다. 84년생 우려되는 점이나 모순점을 간과하지 말고 확실치 처리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자. 96년생 유혹으로부터 오는 우환을 막아내야만 한다. 행운의 숫자 : 15, 91
37년생 소란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49년생 번거롭다면 가져 가지 않아 버려도 무방할 것이다. 61년생 분출구가 없다면 반드시 한계 범위에 이를 것이다. 73년생 장기적으로 지속되어야 효과를 보게 될 것이다. 85년생 유연한 사고방식이 순조로움을 이룰 것이다. 97년생 기왕 시작했으면 끝을 보는 것이 좋다. 행운의 숫자 : 25, 99
38년생 다소 시간은 걸리겠지만 여건이 조성되어 가리라. 50년생 좋은 마무리는 큰 이익을 불러올 수도 있다. 62년생 시도한다면 손쉽게 얻을 수 있는 판세이다. 74년생 이루어 놓고 말해도 늦지는 않으니 입을 꼭 다물어라. 86년생 시각에 따른 관점의 차이가 상당 할 것이다. 98년생 대동 구멍으로 하늘을 보려는 이치이다. 행운의 숫자 : 22, 81
39년생 숨은 뜻까지 파악할 수 있는 해안이 절실하다. 51년생 기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으니 눈여겨 보아라. 63년생 거두어들이는데 있어서 새어나가는 것이 없지 않게 살펴보자. 75년생 차례대로 실행 했을 때 더 생산적이다. 87년생 충동을 자제한다면 여러 날이 평안할 것이다. 99년생 다양한 기회를 갖되 선택은 신중히 하라. 행운의 숫자 : 14, 90
40년생 현 상태에서 바로 잡지 않는다면 두고두고 후회할 것이다. 52년생 만만치가 않으니 단단히 버려야 할 것이다. 64년생 임시 변통이라면 문제가 속출할 수도 있다. 76년생 해봤자 별 소용이 없을 것이니 아예 포기해라. 88년생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 00년생 인식하였다면 즉시 실행이 뒤따라야 한다. 행운의 숫자 : 16, 51
41년생 아주 가까운 곳에 해결의 실마리가 있다. 53년생 취독하느냐 상식하고 마느냐 하는 갈림길에 서게 된다. 65년생 의무를 다하고 나면 바람직한 국면에 처하리라. 77년생 평소 생각해왔던 기회가 찾아올 것이니 잘 살펴라. 89년생 무리하다 보면 역효과가 날 수밖에 없다. 01년생 극복할 줄 아는 성숙함이 필요하다. 행운의 숫자 : 24, 53
42년생 최선을 다 했었는지 돌이켜 볼 일이다. 54년생 지나친 기교가 오히려 불편함을 야기할 수도 있으니 실질 위주로 임하라. 66년생 주변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 78년생 미리 밝히지 않으면 오해의 소지가 크다. 90년생 폭넓은 안목이 길정의 형세로 이끌 것이다. 02년생 불편하다면 반드시 돌이 고쳐야 한다. 행운의 숫자 : 31, 54
43년생 부담스럽다면 과정과 상관없이 반복할 수도 있는 것이다. 55년생 전혀 들은 말에는 과정이 섞여 있음을 알자. 67년생 여러 가지 경로를 거치면서 성과를 도출하는 국면에 이른다. 79년생 노력 못지않게 우연한 행운도 따라 준다. 91년생 바쁘게 뛰는 만큼 소기의 결실이 따른다. 03년생 지 금 마무리하는 것이 좋다. 행운의 숫자 : 09, 98
44년생 기회회생하는 기쁨이 매우 클 것이다. 56년생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마음을 다잡아야 할 때이다. 68년생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느니라. 80년생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보인다. 92년생 절호의 기회란 결코 흔하지 않는 법이다. 04년생 실재보다 더 부풀려진 것임을 참고하라. 행운의 숫자 : 04, 72
45년생 과거에 얽매지 말고 새로운 일을 도모하자. 57년생 경쟁력을 강화해야만 필라리지가 않을 것이다. 69년생 방지했다가는 갈수록 악화될 수도 있으니라. 81년생 합리성과 논리적인 면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93년생 공동의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으로 부심하였다. 05년생 오늘은 재물을 얻는 길함이 있다. 행운의 숫자 : 49, 60
46년생 금권의 위력 앞에서 휘청거리는 형편이다. 58년생 과업을 도모해도 전혀 무리가 없는 때이다. 70년생 의도는 좋으나 호응이 약한 것이 아쉽다. 82년생 하나의 기쁨과 함께 또 다른 부담감도 생긴다. 94년생 치열함의 강도에 따라 성과가 좌우될 것이다. 06년생 정직한 정세 판단이야말로 성사 여부를 좌우한다. 행운의 숫자 : 10, 96
47년생 서두르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 급할수록 돌아가라. 59년생 합목적성과 투명함이 성과를 배가 시키게 될 것이다. 71년생 진행되는 과정에서 성과의 폭이 넓어질 것이다. 83년생 미루어 왔던 것을 진행하기에 시의 적절하다. 95년생 그 자체만으로도 효과가 있다. 07년생 부담감을 버리고 임하는 것이 마다. 행운의 숫자 : 36, 66